

취준생 4000명, 일자리의 寶庫 ‘중견기업’과 만나다

(보고)

Q 르포 |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 가보니

중견기업 90곳, 530명 채용 나서
메이크업 등 이미지 컨설팅 ‘인기’
전·현직 재직자 1:1 멘토링도 가능

면접용 정장에 구두를 갖춰 입은 취업준비생 권현지(가명) 씨는 코엑스로 향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다섯 군데 기업과 미팅을 신청한 그는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4시 반까지 인사담당자와 미팅과 부대행사 등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 제조업체 블루버드 인사담당자와 미팅을 마친 권 씨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준정보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녀는 바쁜 발걸음으로 11시 30분에 미팅이 하나 더 있다며 부스를 찾아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우수한 중견기업에 인재 채용의 장을 제공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는 ‘중견기업 일자리드림(Dream)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일자리 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된 중견기업 전용 일자리 박람회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하고 일자리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90개의 중견기업과

4000여 명의 청년 취업준비생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은 530여 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월드클래스 300이나 세계일류상품 등에 선정된 기술형·혁신형 우수 중견기업이 전체 참가 기업의 36%를 차지했다. 일자리 으뜸기업이나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뽑힌 기업도 전체 참가 기업의 31%였다.

참가기업들의 평균 초임은 대졸 신입 기준으로 3500만원 이상이다. 업종은 기계, 전자, 화학 등 주요 제조업을 비롯해 서비스, 유통, 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업 분야까지 다양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매칭된 기업과 구직자가 현장에서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실제 면접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옷 취준생들로 가득했다. 인사담당자와의 면접 미팅 외에도 인공지능(AI) 현장매칭 시스템, 전·현직 재직자와의 1:1 직무 멘토링, AI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기업과의 약속 시간 사이에 부대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도 많았다. 화학공학 분야 석사 졸업생 박 모 씨는 관심 있는 기업을 두 곳을 사전 예약하고 박람회장을 찾았다. 취업정보카페에서 이번 행사를 알게 된 박 씨는 “대한솔루션과 미팅을 했는데 제가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고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인사팀에 표현하게 위해 노력했다”며 “(인사담당자가)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다”고 말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을 찾은 구직자들이 각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했다. 그는 기업과의 미팅 사이 시간에 1:1 직무 멘토링도 받았다.

부대행사 중에선 ‘이미지 컨설팅’ 부스의 줄이 특히 길었다. 이미지 컨설팅에서는 면접이나 취업 사진 촬영 시 나에게 맞는 메이크업과 옷차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많은 취준생이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맞는 색조 화장이나 넥타이 등을 찾았다.

사전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미팅을 신청할 수 있었다. 비서직을 희망하는 취준생 강 모 씨는 현장 면접 신청을 통해 법무법인 율촌과의 미팅을 잡았다.

두 타임 남아있는 시간 중 3시 반을 택한 강 씨는 “인사담당자를 만나보고 싶었던 기업인데 다행히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취업박람회는 처음이라 밝힌 강 씨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참석하고 싶다”고 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도 많았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원하는 고교생들도 고졸 채용을 하는 회사를 찾아 삼삼오오 모여 부스를 찾아다녔다.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를 다니는 정 모 씨는 “학교에서 3학년이 다 같이 행사로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조리 분야에 관심 있는 정 씨는 사보텐, 타코벨 등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기업 캘리스코와 조리 서비스업을 하는 후니드 부스를 방문했다. 그는 “조리 쪽에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상담을 받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흥미가 간다”고 밝혔다.

인사담당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본사 사무직과 장원교육 선생님을 채용하는 장원교육은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진 인재를 원한다. 장원교육 인사팀 손규락 대리는 “오전 미팅 스케줄은 꽉 찼다”고 말했다. 손 씨는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다섯 분이나 왔다 갔다”고 했다. 그는 “아무래도 2년 전 구직자였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절실함을 이해한다”며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 개막식에서는 중견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견기업연합회 간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번 MOU에는 산업부와 고용부의 협업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중견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매력적인 근무여건을 갖춘 일자리의 보고로, 중견기업의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산업부와 고용부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우수한 중견기업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며 기업과 청년들이 상호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한기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포스코청암재단

‘히어로즈펠로십’ 신설 장학금 1000만원 전달

포스코청암재단이 포스코의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실천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포스코히어로즈펠로십’을 신설했다.

13일 포스코청암재단에 따르면 이는 국가와 사회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 또는 의인의 자녀가 안정적인 학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포스코히어로즈펠로십 첫 수여자로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화재 진화에 큰 공을 세운 속초소방서 정호봉 소방령, 고성소방서 김병령 소방경, 인제소방서 박정훈 소방경 3명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속초소방서에서 김영조 속초소방서장, 진형민 강원도 소방본부 행정과장장 포스코청암재단 김선욱 이사장, 오동호 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펠로증서와 함께 자녀 장학금 1000만원이 전달됐다.

포스코히어로즈펠로십 수여자 선정은 심사위원회 및 외부 추천을 통해 향후 수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물류’로 묶인 청년들, 지식 공유로 핵심인재 꺾차다

인터뷰 한국청년물류포럼 김용식 회장

6개월마다 운영진 바꾸며 활동 이어
17기엔 24명... 현재까지 300명 배출

“우리는 나눔을 위해 모인 물류인들이다(People of Logistics United for Sharing).”

물류산업의 미래를 위해 열정 하나만으로 땀땀 뭉친 청년들이 있다. 2007년부터 20~30대 연령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물류 학술단체 한국청년물류포럼과 17기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식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기수당 20여 명 정도가 운영진으로 참여했으니 30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그동안 포럼을 거쳐갔다. 김 회장은 2월부터 포럼을 이끌고 있다.

청년물류포럼의 가장 큰 목적은 물류라는 공통점으로 모인 청년들이 세미나, 토론회, 기업 탐방, 현장 견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물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넓혀 관련 분야의 핵심 인재로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이다. 물류 트랜즈나 여러 지식 등을 운영진이 모여 공유하는 내부세미나도 매주 주요 일마다 열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와 물

류 관련 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으로 ‘청년물류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중소기업 물류 현장 곳곳을 누비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포럼을 거쳐 물류업계에 몸담고 있는 선배들의 멘토 역할도 눈에 띈다.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을 나이에 관련 활동에 만만치 않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이다.

김 회장은 “포럼 멤버에는 물류 관련 전공자가 절반 정도이지만 산업공학 등 공대생, 수학, 경영, 어학 전공자 등 다양하다”면서 “배운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물류 이야기를 하다보면 다양한 시각과 지식을 접할 수 있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 역시 물류와는 거리가 먼 어학을 전공했다.

물류산업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돼 빠르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포럼도 자연스럽게 ‘지식 융합’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6개월마다 회장단과 운영진이 바뀌는 포럼은 김 회

장을 포함해 현재 23~29세 나이의 운영진 24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다. 물론 회장을 나이 순으로 뽑는 것은 아니다.

“전임 기수가 다음 기수의 운영진을 뽑는 것이 관례다. 면접을 통해 엄선(?)하는 것이다. 면접에서 선배들이 운영진으로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물류에 대한 ‘열정’이다.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된 회장단과 기획부, 교육부, 홍보부 등의 부서는 뽑힌 운영진이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한다. 17기의 활동비전인 ‘나눔을 위해 모인 물류인’과 같은 슬로건도 기수 멤버들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생각도, 살아온 곳도, 공부한 내용도, 나이도 다른 등 ‘물류’라는 공통점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청년들로 구성된 포럼이 10년을 훌쩍 넘는 기간 탄탄하게 유지돼 오고 있는 것은 그동안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간결한 규칙 때문이다.

그는 “기수마다 그때그때 비전과 회칙을 정해 적용하고 있지만 5년 결석을 하면 수료를 하지 못하는 등 규칙이 엄격하다. 물론 대부분은 무리없이 수료한다. 나름대로 (선배들로부터)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 운영자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럼 운영진 대부분은 물류업계에 취업을 하고 있다. ‘열정’으로 포럼 활동을 시작해 지식과 네트워크 등을 다양하게 쌓은 결과다. 어학을 전공한 김 회장 역시 물류업계 취업이 꿈이다.

“언어에 관심이 있어 해외영업 관련 준비를 하다보니 무역에 관심을 갖게됐고, 물류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물류는 현장이고, 현장에서 배울 것은 무궁무진한 것 같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물류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컨설팅트를 하는 것이 소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청년물류포럼 17대 김용식 회장.

/김승호 기자

